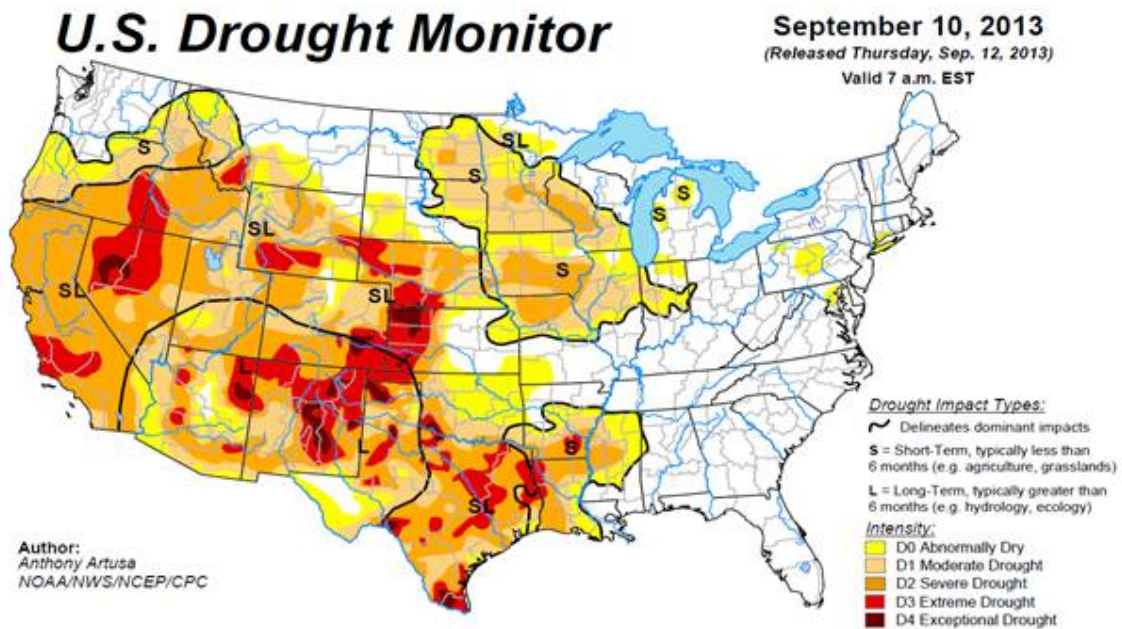


※ 9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0, No. 39)

□ 미국 기후 현황(9/08~9/14)



계절풍(몬순) 순환과 냉대기류의 상호작용으로 콜로라도 지역에 역사적인 폭우와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였다. 주간 전체 강수량은 6-18인치 정도이고, 로키산맥 동쪽의 몇몇 지역에는 평균보다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폭우는 중부 고원지역의 평야와 다른 접경지역에도 충분하게 내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부 고원지역의 강수량은 목초지와 방목지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였고, 신규 조성된 가을 밭 농경지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강우는 강수량이 적거나 영향이 없는 로키산맥 북부지역과 태평양 연안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정상 기온보다 10°F 이상 기온이 높고 건조한 가을 밭 재배지인 북서부 지역은 작물 생육에 유리성이 발생하였다. 또한, 부족한 주간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중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내린 강우는 옥수수와 콩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고, 반면 남부지역은 소량의 강우로 하계작물의 수확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남부지역은 폭우와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북동부지역은 2인치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남동부 일부 지역의 폭우와 강수량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후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국의 기온은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비록 서늘하고 낮은 기온은 주말쯤 예상하고 있으며, 평원과 서부 콘벨트 지역은 평균 5°F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다.

□ 주간 농업 현황(9/09~9/15)

이번 주 내내 태평양 북서부지역, 대평원지역, 그리고 미시시피 계곡 지역 등 미국의 대부분 지역은 평년 평균기온보다 10°F 이상 기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폭우와 많은 강수량은 보인 남서부지역은 평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 특히, 콜로라도의 경우 평년 강수량보다 약 800% 많은 강수량은 기록하였다.

- 옥수수: 올해 옥수수의 97%는 금주 주말까지 호숙기(열매 성숙기)로 접어들거나 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에 약 3%는 호숙기를 지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것은 5개년 평균과 비슷하지만, 작년에 비해 늦다. 국가 전체로 옥수수의 81%는 금주 말(9월 15일)에 수확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수확기에 접어든 옥수수는 전년대비 16% 늦고, 5개년 평균 대비 약 5% 포인트 늦다. 그리고 금주 주말까지 전체 옥수수의 22%는 성숙되지만, 작년 대비 51% 포인트가 늦고 5년 평균보다 약 19% 포인트 뒤쳐진다. 아이오와 주는 옥수수 파종기가 일러 수확하였고, 국가 전체로 금주 주말까지 약 4%의 옥수수가 수확될 것이다. 이는 작년 대비 20% 포인트 늦고, 5개년 평균보다 6% 포인트 늦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옥수수의 53%는 생육상태 등이 우수하고 지난 주말부터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다. 작년 대비 약 29%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두: 전국적으로 대두의 26%는 9월 15일까지 잎이 떨어지는 단계에 접어들거나 지날 것이다. 이는 작년 대비 28% 포인트 늦고, 지난 5개년 평균보다 9포인트 뒤쳐지고 있다. 오하오 계곡의 평년 기온보다 높은 기후는 인디애나와 오하오 주의 대두 생산량을 27% 포인트 앞당기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두의 53%는 생육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 동기 대비 29%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보밀: 금주 주말까지 2014년 국가 전체 재배면적의 약 12% 정도 파종이 완료될 것이다. 작년 대비 2%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이고, 5년 평균 파종면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워싱턴 주의 경우 파종면적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일부 지역은 강수량으로 재배면적에 토막(비가와 건조해지면서 얇은 막이 형성되는 것)이 발생하여 재파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쌀: 9월 15일까지 국가 전체 쌀 재배면적의 약 35%는 수확될 것이다. 작년 대비 26% 포인트 늦고, 5개년 평균보다 8 포인트 늦다. 캘리포니아의 쌀 재배지역은 건조해지면서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73%의 쌀이 우수한 생장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주보다 2% 이상 높게 나타난다.

□ 세계 기후 현황(9/08~9/14)

- 유럽: 유럽 전역에 걸친 지역적 폭우로 작물의 수확과 파종에 애로가 발생하였지만, 가을밀에 필요한 수분 공급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천히 움직이는 저기압이 차가운 기단과 만나면서 프랑스, 영국에서부터 폴란드, 발칸반도까지 10-60mm의 강한 비가 내렸다. 지역적 강수량으로 기존 건조했던 헝가리와 중부 다뉴브강 계곡 지역의 가을 밀과 유채의 생육에는 유리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하계작물 수확과 가을 작물과 지방 종자(기름짜는 식물)의 파종을 해야 하는 지역은 작업이 지연되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으로 건조한 지역은 제한되었지만 이들 지역의 면화 수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구소련(서부): 구소련의 주요 작물 재배지인 남부지역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기후가 계속 진행되었다. 특히,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과 남부 벨라로시에서 러시아 중부지역은 10-50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인 강수량은 하계작물의 품질과 수확의 지연을 초래하였고, 가을 밀 등 파종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한 러시아 남부지역의 서중부 지역을 제외한 남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지역은 건조한 기후대가 형성되어 가을작물에 대한 파종 등이 진행되었다. 구소련 지역의 기온은 주요 가을 작물 재배지역의 평균 기온은 1-3°C 낮지만, 우크라이나 북부지역의 온도는 평균 보다 높아 옥수수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지역의 따뜻한 기후는 옥수수, 대두, 쌀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양쯔 계곡의 북부지역의 습한 날씨는 면화의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 북동부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균 기온보다 2-3°C 높아 하계작물의 성장과 수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10-40mm의 강수량으로 가을작물의 파종에 유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첫 서리가 발생한 후 하계작물의 생육 과정을 볼 때 생산량의 향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남부지역과 북부 중국 평원의 북쪽지역의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는 면화와 땅콩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만, 남부지역의 강수량(25-125mm)은 면화와 땅콩의 생육에 불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적절한 수분은 가을 옥수수 재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나타난다. 양쯔 계곡의 서부 작물재배 지역에 걸쳐 내린 100mm 이상의 강수량은 늦게 파종한 쌀과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만, 25-50mm의 강수량을 보인 후안과 장시 등의 남부지역에서는 계절적 가뭄현상이 악화되었다. 그 밖의 지역인 북한의 경우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었고, 대한민국은 50-100mm의 강수량으로 강수량이 희박한 시절에 수분이 초과 공급되었다. 일본은 세 번째 태풍(Man-Yi)의 영향으로 주요 쌀 재배지의 생장이 지연되고 있다.
- 호주: 서부 호주지역의 강수량(15-50mm)은 가을작물과 지방 종자(기름짜는 식물)식물의 생산량의 향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호주의 남동부 지역의 강수량(5-30mm)은 밀, 보리, 카놀라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호주 북부지역인 New South Wales와 남부 Queensland의 건조하고 높은 기온은 밀과 다른 가을작물의 수확을 감소시킬 것으로 나타난다. 호주 동부의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5°C 높고,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은 30°C에 육박하였다. 호주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대비 약간 높게 나타난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지역적 강수량은 가을 작물을 재배하는 동부 생산지역에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였지만, 서부지역은 건조한 기후가 계속 되었다. 전체 강수량이 5-50mm 이상인 지역은 중부와 동부의 Buenos Aires, 북부의 Entre Rios, Santa Fe, Entre Rios 등이다. 그리고 서부 Buenos Aires와 남부 Chaco 지역은 5-25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비정상적인 건조 기후가 지속되면서 La Pampa와 Cordoba 북부지역의 가을 작물의 생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간 초반에 평균 기온보다 3-5°C 높은 기온과 주간 최고 30°C의 기온은 가을 채소의 건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밤 기온이 10°C 내외인 온화한 기후는 주 후반부 중반에 나타날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건조지역의 작물과 가을 작물의 생장에 추가적인 강수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 브라질: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는 브라질의 중부와 남부지역에 나타났고, 가을 밀과 사탕수수의 수확에 도움이 되고 있다. Rio Grande do Sul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는 주 초반까지 10mm 미만의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주간 기온에서 중서부 지역(Mato Grosso, Goias, 북부 Mato Grosso do Sul)은 평균 기온보다 2-5°C 높게 나타난다. 일부 지역의 주간 최고 기온은 30°C 후반을 나타나지만, 가을 밀의 주요 재배지인 남부 생산지역은 평년 기온보다 8°C 높고, 주간 최고 기온도 30°C 초중반을 보여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Sao Paul 지역의 사탕수수와 시터러스(귤의 일종) 수확에는 유리한 기후는 보이고 있다. 계절적 강수량이 10-100mm 이상인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사탕수수와 코코아 재배에 필요한 관개 수량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다음주에 대두 재배지역인 브라질 남부 지역인 Parana, Mato Grosso do Sul에 강우가 예고되고 있고 Rio Grande do Sul 지역에서는 작물 수확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나타난다.